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4.(화) / 총 1매(본문 1)
담당부서	도로투자지원과	담당자	· 과장 방윤석, 사무관 박병익, 주무관 박상철 · ☎ (044) 201-3897, 3901, 389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가드레일 교체 지시에... “돈 없다” 손 놓은 민자도로

위험구간부터 우선 개량중이며 잔여구간도 단계적으로 개량

- 현재 운영 중인 17개 민자고속도로 중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한 가드레일이 설치된 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노선*이며 나머지 고속도로는 기준에 맞게 가드레일이 설치되었습니다.
 - 설치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으나, '12년 이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구간이 기준보다 미흡하게 된 것입니다.
 - * 인천공항, 천안-논산, 대구-부산, 서울외곽(일산-퇴계원) 민자고속도로
 - '12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위험구간*부터 우선 개량하여 '21년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, 나머지 구간도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* 위험구간 : 하천추락 위험구간, 도로 끝 이탈구간, 교량구간 등
 - 총 기준 미달 가드레일 381km중에서 '21년까지 위험구간 등 104km*를 개량 완료할 예정입니다.(‘16년까지 28km 기 완료)
 - * 인천공항(44km), 천안논산(42km), 대구부산(6km), 서울외곽(12km)

< 관련 보도내용 (SBS뉴스), 10.23 >

◆ ‘가드레일 교체 지시에... “돈 없다” 손 놓은 민자도로

- 민자고속도로는 예산이 없다며 거의 손을 놓고
- 국민안전이 우선이지... 빠른 교체가 필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투자지원과 박병익 사무관(☎ 044-201-39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